

신 앙

차 례

1. 공인종교
2. 마을신앙
3. 무속신앙

신앙 분야 조사는 신례1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인종교와 부락 신앙, 무속신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불교와 기독교 등의 공인종교는 활발히 활동하며, 잘 알려지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친밀하였다. 하지만 공인종교에 비해 무속신앙은 그 기세가 미미하였으며 마을신앙인 포제 역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공인종교에 비해 다른 신앙은 그 자료가 부족하다.

1. 공인종교

신례1리의 공인종교로는 한국불교태고종에 속하는 심향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신례교회가 있다. 심향사는 설립 초에는 포교를 위해 무·불 혼합적인 성격을 띠다가 지금은 불교 본위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신례교회는 선교 활동과 함께 노인학교와 아동센터를 운영해 사회복지단체의 성격도 갖고 있다.

1) 불교

신례1리 1636번지에 위치한 심향사는 1975년 5월 이곳 출신인 양경옥 스님(법명: 매개 당 수현)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1977년 9월 한국불교 태고종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문공부에 등록하였다. 1981년 1월에는 1200kg에 달하는 청동범종을 조성하고 이후 대웅전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포교지역은 서귀포, 제주시, 위미, 남원 등 신례리를 중심으로 전도에 걸쳐 있으며 신도는 대략 150세대이다. 오전 4시 20분과 오후 7시에 예불을 보는데, 약 10여 명 정도가 참여한다.

설립 초기에는 포교를 위해 무속적인 성격도 많이 받아들여 처음에는 무·불 혼합적인 성격이 짙었으나 현재는 불교 본위의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예불 뿐 아니라 사적인 안부 전화도 오가는 등 마을 주민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신례교회

신례교회는 1955년 '위미기도처'로 출발하여 1968년 신례교회로 발족하였다. 이후 선교 활동을 계속하며 노인학교, 아동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과 연계하며 운영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례교회'이고 대표자는 김진광 목사이다. 신례1리와 신례2리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배는 시간과 연령대 별로 속해 있는 소집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다.

예배시간 및 예배장소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낮	주일 오전 11:00	본당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본당	아동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수요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교육관
구역예배	(금) 오후 8:00	구역별	청년부	주일 오후 5:00	교육관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노인대학	(토) 오전 10:00	노인대학
새신자공부	주일 오후 12:30	본당	중보기도	주일 오전 10:00	본당2층
전도대모임	매주 목 10:00	본당	성경탐구	주일 오후 1:00	교육관

부설기관으로는 노인학교와 아동센터가 있다.

노인학교는 1998년 3월 21일 개교하여 지금은 제6기가 졸업하고 제7기가 진행중이다. 교육 과정은 영어, 에어로빅 댄스, 부채춤, 사물놀이, 서예 등이며 남원읍 관내 60세 이상 남녀 지원자에 한해 참가자를 뽑는다.

아동센터는 2005년 1월 1일 개원했다. 아동복지시설로 지역 사회의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프로그램과 보호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과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 권리 보호이다. 교육을 위해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하며 기존 영어 어학 실습실을 활용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보호 및 급식 지원을 하며 아동의 여가를 위해 문화 체험, 특별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방문과 부모 상담, 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 기능의 강화를 꾀하며 아동 권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마을신앙

포제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어르신들도 기억 하시는 분이

드물었다. 다만 남아 있는 약간의 자료를 통해 제의 순서를 정리해 본다.

- ① 명칭: 포제
- ② 제신: 국토지신(마을지신)
- ③ 제일: 음력 정월 이후
- ④ 제관: 3헌관과 집례, 대축 등 18인의 제관을 정한다.
- ⑤ 제의 관리: 포제 전에 부락에서 총회를 해서 금년에는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 뽑는데 각 성씨와 일가 별로 참작을 한다. 포제 3일 전에 큰집을 택하여 제사가 시작될 때까지 나가지 않으며 합숙을 한다.
- ⑥ 제물
 - 채소류-곡식(좁쌀, 보리쌀), 나물, 찹쌀, 피, 지장
 - 녹포녹회- 사삼고기, 노루고기
 - 희생-돼지(얼룩이 없는 검은색. 거세되지 않은 수놈이어야 함)
- ⑦ 제복: 청의(도복을 청색으로 함), 유건. 각자가 스스로 마련한다.
- ⑧ 제기: 돛그릇을 사용한다. 팔변 팔주라 하여 '팔변'은 세우는 그릇이다.
- ⑨ 제청: 큰집
- ⑩ 제관의 종류
 - 초헌관: 첫째 헌관
 - 아헌관: 둘째 헌관
 - 종헌관: 막내 헌관
 - 집례: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
 - 대축: 축문을 고하는 사람
 - 도예차: 대축의 대리인
 - 예천관: 예비 보결
 - 알자: 행제할 때 헌관을 인도하여 제의를 행하게 하는 이
 - 봉향: 향을 피우는 사람
 - 동찬: 동쪽에 위치하여 제관이 절을 하도록 외치는 사람
 - 서찬: 서쪽에 위치하여 제관이 일어나도록 외치는 사람

- 사문: 행제 때 술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따르는 사람
- 봉작
- 전작
- 전사관

음복을 끝내고 마을 총회를 하였다. 1972년 새마을운동 이후 사라졌다.

3. 무속신앙

무속신앙 역시 마을신앙과 마찬가지로 그 기세가 미미하여 지금은 거의 잊혀져 있으므로 조사한 자료가 많지 않다. 당은 '남밀 할망당'과 '큰당'이 있는데, 큰당은 지금 공동 목장이 되었다고만 할 뿐 다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제보자는 없었다.

남밀 할망당은 말 그대로 나무 밑의 할망당이라는 뜻인데, 정식 명칭은 '예촌 일똥당'이다. 이 당의 당신은 여신으로 이름은 '서당한집 일똥또'이다. 당은 리사무소 앞쪽의 동산에 위치해 있으며, 큰 고목과 잡목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 당의 당신은 산육과 치병신으로 예전에는 마을의 화와 액을 막아준다고 믿어 가정의 무사함과 집안 식구들의 편안을 위해 이 할망당에 제물을 올려 기도를 했다고 한다. 매달 7일, 17일, 27일에 제를 지냈으며 당에 갈 때는 메 2기와 굴 등 과일을 가지고 갔다. 또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도 음식을 가져와 기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의 주민들 뿐이고 오히려 쓰레기에 덮여 있어 할망당에 대한 믿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당의 건조 형태는 수림형, 동산형, 신목형, 제단형, 석원형이다.